

# 광주·전남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전국 최하위

### 전남지노위 5년간 5%만 인정 노동자에 입증 책임 전가도 사업주 자료제출 요구 12%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지노위가 처리한 부당노동행

위 사건은 359건으로, 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 사건은 18건(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3개 지노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지노위에 이어 강원지노위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노위의 인정률은 76.8%,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 21.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이었다.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라도, 최종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

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입증 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지만, 관련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지노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자료제출 요구 실적은 359건 중 46건(1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전국 지노위 중 세번째로 낮은 수치로, 가장 높은 강원지노위는 49.1%(383건 중 188건), 전국 평균은 19.3%였다.

전남지노위의 현장방문 조사실적도 85건(23.7%)에 불과했다. 경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는 최근 5년간 현장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충남지노위는 4회, 경기지노위는 5

회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지노위들이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부당행위 인정률 격차가 크고,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의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고용노동부 산하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전남지노위는 광주·전남지역 근로자 부당행위·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판정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중재 등을 맡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핑크빛 물결은 함평의 가을 9일 함평 주포한옥마을에 조성된 핑크몰리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나주 업체 납품 전투식량서 귀뚜라미·고무줄 등 발견 신고

### 16건 접수...나주시 조사중

전남지역 업체가 군에 보급하는 전투식량에서 벌레와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중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기품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형 전투식량 납품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다. S형 전투식량은 뜨거운 물을 부어 15분간 익혀먹는 제품으로, 육군 기준 전투식량의 25%(170만개)를 차지한다.

지난 6월 카레비빔밥에서 고무줄과 플라스틱이 나왔고 해물비빔밥에서는 고무 밴드가 발견됐다. 7월에는 닭고기비빔밥에서 귀뚜라미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음식 색깔이 변했거나 밥알이 그대로 씹히는 등 조리상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16건의 사용자 불만 모두 나주 소재 A업체가 생산한 전투식량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불량 사례가 접수돼도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약과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기품질 담당이지만 업체의 귀책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관리 인

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 자치단체에 조사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접수된 불량 사례 16건은 나주시가 조사했다. 이 중 5건은 '업체 귀책 없음'으로 결론났고, 나머지 1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가 조사를 마치더라도 기품질의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을 대표하는 군납업체인 A사는 자치단체장 등이 우수 모범업체로 자주 방문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조사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철도노조 11~14일 파업 예고

### 고속열차 20% 감축 운행될 듯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14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호남선 KTX 등 일부 열차편이 감축 운행될 예정이다.

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경고성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고속열차(KTX) 예상 운행률을 평상시 대비 81.1%(KTX 72.4%·SRT 정상 운행)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6.8% 수준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하면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파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 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

### 내년초까지 특성화 육성사업

광주시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새롭게 확 바뀐다.

북구는 "내년 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들여 용봉지구 패션의 거리 특성화 육성사업을 추진해 상점이 살리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이달까지 희망 상인에 한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후 제로페이 QR코드와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올해까지 점포 소개·쇼핑 정보 안내·온라인 쇼핑물 등의 기능을 갖춘 쇼핑 홈페이지를 개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패션의 거리 이미지 통합과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고객 확보에도 주력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4 해질 18:05 달뜨기 16:38 달집 02:55

### 큰 일교차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11/23	보성	구름많음	8/23
목포	구름많음	12/22	순천	구름많음	11/25
여수	구름많음	15/22	영광	구름많음	9/22
나주	구름많음	8/24	진도	구름많음	10/23
완도	구름많음	13/24	전주	구름많음	10/22
구례	구름많음	8/24	군산	구름많음	10/21
강진	구름많음	9/24	남원	구름많음	8/23
해남	구름많음	8/24	축산도	구름많음	15/21
장성	구름많음	8/23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2.0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먼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 ◇ 생활지수

- ☑️ 관심
- ☑️ 식중독
- ☑️ 높음
- ☑️ 자외선
- ☑️ 좋음
- ☑️ 미세먼지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38	00:04
17:38	12:15	
여수	01:17	07:11
	13:11	19:43

### ◇ 주간 날씨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	☁️	☁️	☁️	☀️	☀️	☁️
14/25	15/25	13/23	12/22	11/21	10/21	11/21

## 광주시·전남도 보도자료 1건당 외국어 1.4개 사용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1건당 평균 1.4개의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시 보도자료 160건에서 207개, 전남도 보도자료 160건에서 247개의 외국어가 사용됐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국어원이 점검한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 2만 564건 중 1만 310건의 보도자료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금융위원회(144건), 중소벤처기업부(13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3건) 등이 국립국어원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단어로, 사전에 실려 있는 해외단어는 외래어로 간주해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지역 방치 폐교 전국서 가장 많아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은 폐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138개였다. 이는 경북(14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남은 매

각이나 자체 활용 등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교도 42개(30.4%)에 달해 전국에

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682개 폐교 중 170개(24.9%)가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는 서울과 함께 가장 적은 1곳만 폐교됐고, 현재 자체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경민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 주민의 다양한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